

대구시 거주청소년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Outlook of Juveniles in Taegu

윤 정 애*
Yun, Jung Ae
안 옥 희**
Ahn, Ok Hee

Abstract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posing a questionnaire, mak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549 in Taegu an object of this research, in order to grasp the residential outlook of juveniles.

1. The first order of reason why they have resided in present their houses was by a school group and their parents' choice and work place and second order of reason was by their parents' choice, life convenience in present house add traffic convenience An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first and second residential reasons according to sex.

2. In comparison with past and present house type, past and present house type showed same tendency and future wanted house type was separate house absolutely.

3. Points to be considered in selecting future were in the order of facilities, traffic, surrounding, educational, soci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almost items to be considered in choosing according to sex. But in case of schoolgirls, they considered more items in selecting houses than in schoolboys.

4. As a result of researching ideal house of juvenile, happy family was most preferred and the desire to possess house was expressed strongly.

5. The first value on house was health of family, the stability, the stability and the residential convenience. And schoolboys attached more importance to the wealth of family, the stability and the education for children than in case of school-girls but on the other hand schoolgirls attached more importance to economical value house and happy and harmonious family.

* 정희원, 영남대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정희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1. 서 론

주거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일차적인 환경(Micro Environment)으로서 휴양의 장소, 가족단란의 장소 및 가사노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주거에 대한 문제는 사회학적, 건축학적, 심리학적 측면등 세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주거를 단지 물리적인 구조물로만 인식하지않고 인간생활에서 무시할수 없는 핵심적 환경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¹⁾ 즉 일반적으로 인간의 주생활은 주택의 구조체에 의해 구획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생활 공간으로서 이용하는 것으로 생활행위와 물리적 공간사이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질때 비로서 주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목적을 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거주자는 주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잠재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를 주거관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거관은 시대에 따라 그 사회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며 지역에 따른 환경의 영향, 사회계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²⁾

주거관이 형성되기까지는 몇단계를 거치는데 그 1단계는 주거관 형성의 잠재적인 마음 상태로 구체적인 형을 갖지 않는 주의식 단계이다. 이는 현 주거환경을 살펴 보는 것에 의해 분석할 수 있다. 2단계는 주의식이 의견의 형태로 표현되는 단계로 주거에 대한 의견만이 표현될 뿐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인 주의견 단계, 3단계는 단편적인 주의견이 계통적으로 묶여나온 주택이상 단계, 4단계는 주거이상의 단계에서 형성된 협의의 주거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단계인 주요구의 단계이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 주거관을 미리 파악하여야 바람직한 주택계획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²³⁾ 또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위계화한 마슬로우의 욕구체계를 바탕으로 주거가치의 내용을 분류하여 이를 주거관의 파악에 이용하는 학자들도 있다.⁴⁾ 이와같이 주거관은 몇 단계를 거쳐 형성되며 이미 형성된 주거관도 여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변성이 있는 주거관은 모든 주거문화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주거관의 형성단계나 그 단계중 일부에 대한 고찰만을 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관을 주의식, 주의견, 주택이상, 주요구단계를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아개념 내지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와 함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렬한 시기에 가지게 되는 가치관의 정립이 앞으로의 주거문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관을 밝힘으로써 시대성과 사회변화에 따른 주거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새로운 주거상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 주거환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 주의식에 관한 것을 파악한다.
2. 청소년의 주거선택시 고려점을 살펴본다.
즉, 주거에 관한 의견을 파악한다.
3. 주택에 관한 이상상을 파악한다.
4. 주거에 관한 가치순위를 살펴본다.
즉, 주요구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1. 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조사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연구자가 선행연구등을 참고로 제작한 도구인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및 현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족수, 부모의 직업, 학력및 가구의 월평균 수입, 종교, 출생지, 주택의 평수, 주택의 소유형태와 이전 주택유형, 희망 주택유형, 방의 소유상태등의 문항.

둘째, 주거선택시 고려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18개 문항.

셋째, 주택의 이상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14개 문항.

네째, 주거가치에 관한 8가지 측면의 가치에 대해 그가치를 두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2. 조사의 대상 및 자료처리

1) 조사대상

임의로 선정한 대구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 4개교의 2학년을 대상으로 남,여를 거의 같은 비율로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1993년 2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600부를 배부하여 579부(96.5%)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549부(94.8%)를 자료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 .82로 나타났다.

2) 자료처리

자료의 처리는 spss pc+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χ^2 -검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주의식)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가족수는 평균 4.8인이며 4-5인 가족이 75%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을 보면 고졸, 대졸이상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고졸이 77.2%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부모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개인업·자유업이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무·관리직 26.9%의 순이며, 어머니는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69.9%).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전체 평균이 161만원으로, 국민경제제도 연구에서 조사한 1991년 도시가계 월 평균 소득 114만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81-200만원 까지의 분포가 71.8%를 차지하여 중류이상의 경제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종교는 무교가 39%로 가장 많고, 불교 28.2%, 기독교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와 지금까지 살아온 거주지역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대도시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조사지역이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평수는 국민주택의 상한선인 33평을 기준으로 하여 33평 이하는 53.5%, 34평 이상은 46.5%로 나타났으며, 주거평수의 평균은 39.6평으로 주택규모에 있어서도 중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거 평수가 경제적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주택의 거주년수는 1년이하의 기간이 가장 많고 (16.8%), 평균 거주년수는 5.4년이다. 이는 현 주거환경에 이미 익숙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전한 후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 지는 기간으로 보여져 주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만큼 충분히 경험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되는 대상 선정임을 알 수 있다.

집의 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70.4%, 타가인 경우가 29.6%이며, 조사대상자의 방의 소유형태는 혼자쓰는 경우가 46.9%,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53.1%로 거의 반반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구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985년의 연구결과⁵⁾에서 자기방의 단독 이용이 34.4%로 나타난 것에 비해 청소년의 자기공간 소유수준이 상승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지금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위 3위까지의 이유를 보면 학군문제, 부모님의 선택때문, 부모님의 직장때문이 제 1의 이유이고, 부모님의 선택, 현주택에서의 생활편리, 교통편리가 제2의 이유이다. 이로써 청소년이 생각하는 현주거의 거주 이유는 학군과 부모님의 선택, 생활의 편리성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거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과 자신들 이외의 요인들로 인해 주거가 선택되고 있다는 생각이 혼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주택 거주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한 결과, 제 1 이유는 $p < .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제2이유에서도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학

<표 1> 일반적 사항

변인	구분	분포 N(%)	변인	구분	분포 N(%)	
성별	남자	294(53.6)	종교	무교	207(39.0)	
	여자	255(46.4)		불교	150(28.2)	
학력	중 2 남자	150(53.4)	출생지	기독교	124(23.4)	
	중 2 여자	131(46.6)		기독교 타	47(8.9)	
	고 2 남자	144(53.7)		기독교 무	3(.6)	
	고 2 여자	124(46.3)		응답	18	
가족수	3인 이하	22(4.0)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	농촌	104(19.0)	
	4인	201(36.6)		어촌	3(.5)	
	5인	208(37.9)		중소도시	83(15.1)	
	6인 이상	108(19.7)		대도시	358(65.3)	
부학력	무응답	10	평수	무응답	1	
	국졸 이하	47(9.7)		33평 이하	33(6.1)	
	중졸	83(17.1)		34평 이상	0	
	고졸 이상	254(52.4)		무응답	61(11.2)	
모학력	대졸 이상	101(20.8)	거주수	무응답	451(82.8)	
	무응답	64		1년	4	
	국졸 이하	79(15.8)		2년	33(53.5)	
	중졸	167(33.4)		3년	213(46.5)	
부직업	고졸 이상	219(43.8)	집소유형태	무응답	91	
	대졸 이상	35(7.0)		집 형태	1년	91(16.8)
	무응답	49			2년	56(10.4)
	사무·관리직	132(26.9)			3년	72(13.3)
기능·서비스직	51(10.4)	4년	64(11.8)			
전문·기술직	49(10.0)	5년	62(11.5)			
개인업·자유업	220(44.9)	6년	30(5.5)			
기타	38(7.7)	7년	37(6.8)			
무응답	59	8년	17(3.1)			
모직업	무직	356(69.9)	9년		17(3.1)	
	사무·관리직	15(2.9)	10년		25(4.6)	
	기능·서비스직	36(7.1)	11년 이상		78(12.9)	
	전문·기술직	12(2.4)	무응답	8		
수입	개인업·자유업	72(14.1)	방	집의 일부를 월세	20(3.7)	
	기타	18(3.5)		집의 일부를 전세	82(15.1)	
	무응답	40		집의 전체를 월세	7(1.3)	
	80만원 이하	27(12.9)		집의 전체를 전세	44(8.1)	
81 - 100만원	54(25.9)	우리집(집일부 세줌)	173(31.9)			
101 - 150만원	49(23.4)	우리집(우리가족만)	209(38.5)			
151 - 200만원	47(22.5)	기타	8(1.5)			
201만원 이상	32(15.3)	무응답	6			
무응답	340	방	나 혼자 쓴다	257(46.9)		
			공동	291(53.1)		
			무응답	1		

군, 부모직장, 부모선택 때문이라는 이유를, 여학생은 학군, 부모선택, 생활의 편리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거주 이유에 대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님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택거주 이유 순위

N=549			
순위	제 1 이유		
	주택 거주 측면	N	%
1	나의 형제의 학교문제	160	25.3
2	부모님의 선택때문에	71	23.6
3	부모님의 직장때문에	69	15.2
4	현재주택의 생활편리	69	7.8
5	이사의 경제적 여건부족	67	7.6
6	교통편리	59	5.9
7	공기와 주변환경의 쾌적	38	5.6
8	문단속, 집안관리의 안전	8	5.4
9	해당없다	5	3.5
	무응답	3	
	계	549	100.0

제 2 이유			
순위	주택 거주 측면		
	N	%	
1	부모님의 선택때문에	136	25.3
2	현재주택의 생활편리	127	23.6
3	교통편리	82	15.2
4	이사의 경제적 여건부족	42	7.8
5	해당없다	41	7.6
6	부모님의 직장때문에	32	5.9
7	공기와 주변환경의 쾌적	30	5.6
8	나의 형제의 학교문제	29	5.4
9	문단속, 집안관리의 안전	19	3.5
	무응답	11	
	계	549	100.0

는 물론 아파트 거주자도 독립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볼 때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세대에서도 아파트보다도 독립주택에서의 생활을 더 원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81년 조사⁹⁾에 의하면 40세를 기준으로하여 젊은 층은 아파트를 바라는 경향이 더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독립주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었으므로 시대흐름에 따라 연령에 따른 주택선호유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3> 과거, 현재, 미래의 주택 유형 (%)

변인	현재의 주택유형				계	비고	
	독립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이사가기전주택유형	독립주택	211(66.6)	71(48.0)	8(30.8)	16(45.7)	306(58.2)	*** $\chi^2=71.0$ df=9
	아파트	22(10.1)	46(31.1)	3(11.5)	4(11.4)	85(16.2)	
	연립주택	29(9.1)	18(12.2)	10(38.5)	3(8.6)	60(11.4)	
	기타	45(14.2)	13(8.8)	5(19.2)	12(34.3)	75(14.3)	
	계	317(60.3)	148(28.1)	26(4.9)	35(6.7)	526(100.0)	
앞으로원하는주택유형	독립주택	164(49.2)	78(52.0)	11(42.3)	11(30.6)	264(48.4)	$\chi^2=9.92$ df=9 N.S
	아파트	140(42.0)	65(43.3)	13(50.0)	22(61.1)	240(44.0)	
	연립주택	22(6.6)	5(3.3)	2(7.7)	3(8.3)	32(5.9)	
	기타	7(2.1)	2(1.3)	-	-	9(1.7)	
	계	333(61.1)	150(27.5)	26(4.8)	36(6.6)	545(100.0)	

유의수준 ***P<0.001

2. 현재의 주택유형과 이전·이후의 주택 유형과의 비교 (주의식 및 주의건)

주택유형을 4가지 (독립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로 나누어 현재와 이사하기전과 앞으로의 원하는 주택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주택유형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표 3).

(표 3)에서 볼 때 이사하기전에 독립주택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독립주택에, 아파트에서 살았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선행 연구결과⁶⁾⁷⁾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전의 주택유형과 현재의 주택유형은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현재 독립주택 및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앞으로 원하는 주택유형은 독립주택임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⁸⁾에서도 독립주택 거주자

3. 주거선택시의 고려점 (주의건)

앞으로 청소년 자신이 주거를 선택할 때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지를 살펴 보기 위해 18문항에 대한 5점 리커트식 측정을 한 결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그 결과 6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1.2%이다.

요인1은 설명변량이 26.7%로 편리한 시설에 대한 항목이 속해 있으므로 「시설환경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2는 설명력이 9.0%이며 이에 속하는 항목은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 「교통환경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3은 7.3%의 설명력으로 항목의 내용이 집 주변의 환경에 대한 것이므로 요인명명은 「주변환경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4는 설명력이 6.9%이고, 학군이나 교육수준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환경 요인」이라 하였으며 요인 5는 5.7%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나

<표4> 주거선택시 고려사항의 요인분석 체면

요인	평가항목	인부하량						공통성	요인명명
		I	II	III	IV	V	VI		
I	집 내부시설이 편리하다.	.724	.345	.184	-.065	.083	-.051	.691	시설
	집의 난방, 급배수시설이 좋다.	.722	.259	.061	.077	.128	.170	.643	
	집주위 주차시설이 좋다.	.654	.124	.114	.350	.028	.019	.579	환경
	내부공간의 배치가 적절하다.	.653	.030	.305	.079	.001	.149	.549	
II	교통이 좋다.	.158	.759	-.013	.253	.043	-.013	.667	교통
	통근과 통학이 편리하다.	.309	.661	.117	.126	.080	.102	.580	
	안심하고 집을 비울수 있다.	.129	.642	.212	-.062	.146	.146	.520	환경
III	집주변의 풍치가 아름답다.	.185	.144	.742	.102	-.073	.038	.622	주변
	베란다 혹은 마당이 넓다.	.209	.026	.621	.175	.171	.094	.498	
	환경이 조용하고 공기가 맑다.	.168	.458	.613	-.039	-.095	.082	.631	환경
IV	집근처 과외활동시설이 많다.	.304	.058	.106	.699	.142	.113	.628	교육
	학군이 좋다.	.030	.449	-.035	.675	.027	-.004	.660	
	이웃과 생활, 교육수준이 맞다.	.009	.100	.339	.634	.230	.057	.584	환경
V	사회적 지위가 높아보인다.	.074	.037	.053	.097	.834	-.014	.714	
	집값 상승과 매매가 잘된다.	.044	.148	-.115	.088	.716	.195	.595	사회적
	다른공간보다 응접실이 크다.	.085	.039	.429	.192	.517	-.039	.499	환경
VI	집의 가격	.095	.134	-.063	.087	.027	.816	.705	경제적
	관리비가 적게든다.	.097	.034	.225	.027	.106	.762	.654	환경
고 유 치		4.80	1.62	1.31	1.24	1.03	1.02		
설 명 변 량		26.7	9.0	7.3	6.9	5.7	5.7		
누 적 변 량		26.7	35.7	42.9	49.9	55.6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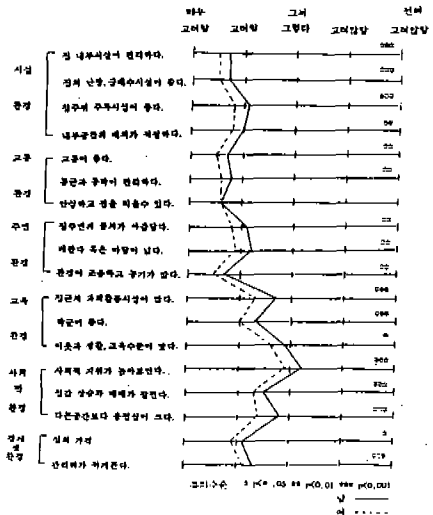
에 관한 항목이므로 「사회적환경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요인6은 설명력이 5.7%이며 경제성에 관한 항목이므로 「경제적환경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은 앞으로 주거선택시에 무엇보다 주택의 편리한 시설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교육 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윤 복자, 백 금화의 이주동기와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¹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주동기의 우선순위는 시설, 물리적 환경, 근린환경의 순으로 소유권 상승 즉, 주택의 투자 가치등에 관련된 항목은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것은 주택의 물리적인 시설환경이 주택의 선택시 아주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은 밖으로 보일 수 있는 과시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거가치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관한 홍 성희의 연구결과¹¹⁾에서 내부시설, 교통의 편리, 주변시설, 학군등에 대하여 생활 주기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령계층에 따라 주거 선택시 고려정도가 변화하리라 추측되므로 이것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또한, 주거선택시 고려정도를 남녀별로 나누어 요인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6개의 요인(교통환경, 시설환경, 지위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경제환경), 여학생은 5개의 요인(시설환경, 주변환경, 지위환경, 교육환경, 경제환경)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의 각 설명력은 60.1%, 57.7%로써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설명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주거선택시에 교통환경, 시설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였으며 여학생은 시설환경, 주변환경등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아 남학생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겪는 교통문제를 앞으로의 주거선택에 있어 중요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주택내부의 편리한 시설과 주변의 환경에 더욱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 주택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서 남녀 모두 학군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앞으로 선택시에는 학군(교육환경 요인)은 그리 중요시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현재는 자신과 자신이외의 요인들로 인해 주거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신과 직접 관계있는 요인들을 보다 중요시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주거선택시 고려정도의 차이를 보면 (그림 1) '안심하고 집을 비울수 있다'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 < .001$ 에서 $P < .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라 주거선택시의 고려정도가 많이 다름을 알수 있다. 즉,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모든 항목에서 주거선택의 고려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제 1요인에서 제 3요인에 속하는 항목에 대한 고려정도가 그 외의 요인에 속하는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성별에 따른 주거선택시 고려정도

4. 청소년의 주택이상상

청소년의 주택이상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66%가 「집이란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가 그 다음 순위로 63%를 나타내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주거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결과로 가족단란주의와 소유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¹¹⁾에서도 집은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주택소유 의지가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기성세대의 주거관이 청소년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이 아닌가로 추측되므로 바람직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세대별 주거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성별에 따른 주거관의 차이를 보면, 내집 장만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P<.05$), 집에 대한 소유욕이 여학생보다 강함을 알 수 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족단란 ($P<.01$), 유행추구 ($P<.001$), 지역성 ($P<.001$) 등에 더 치중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로써 성별에 따라 주택 이상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청소년의 주택 이상상

(%)

번	인	남	여	계	비고
1	점이만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193(35.3)	170(31.1)	363(66.4)	*
2	집은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	199(36.4)	145(26.8)	344(63.0)	$\chi^2=5.57$
3	점이만 가족들의 단란을 위한 곳이라 생각한다.	89(16.3)	107(19.8)	196(35.9)	**
4	집은 생활능력이 허락된다면 생필에 맞추어 이사하고 싶다.	74(13.6)	83(15.2)	157(28.8)	$\chi^2=8.2$
5	유행 따라 실내장식을 변화시키고 싶다	53(9.7)	94(17.2)	147(27.0)	$\chi^2=24.4$
6	필수 있으면 같은 지역에서 계속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79(14.5)	60(11.0)	139(25.5)	***
7	시가지보다 교외에 살고 싶다.	85(11.9)	87(12.3)	132(24.2)	***
8	시골보다 대도시에 살고 싶다.	51(9.4)	74(13.6)	125(22.9)	$\chi^2=10.3$
9	사는것은 적당하게 하고 시원한 데저에 돈을 쓰고 싶다.	38(7.0)	43(7.9)	81(14.9)	
10	마당어 없는 내집보다는 차라리 세를 살더라도 마당어 있는 집이 좋다.	34(6.2)	17(3.1)	51(9.4)	
11	전통가옥이 양속보다 좋다.	26(4.8)	19(3.5)	45(8.3)	
12	집은 세를 살더라도 저가음을 마련하는 게 낫다.	6(1.1)	8(1.5)	14(2.6)	
13	세를 살더라도 집을 살 돈은 다른 것에 투자를 하는게 낫다.	7(1.3)	4(.7)	11(2.0)	
14	점이만 무엇보다도 편자는 곳이다.	6(1.1)	2(.4)	8(1.5)	

유의수준 * PK 0.05 ** PK 0.01 *** PK 0.001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 1가치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권위성이나 심미성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김 미희의 연구¹²⁾ 에서도 거주자들은 주택의 편리성, 안전성 추구를 중요시 하였고, 주택의 권위성, 심미성은 중요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제 1가치에서는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제 2가치, 제 3가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제1가치에서 남학생은 가족의 건강안전성,학군등을 중요한 가치로 두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제성, 가족의 단란화합을 중요가치로 두었다. 이로써 성별에 따라 주거에 부여하는 가치순위가 다를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주거에 관한 가치 순위

순위	제 1 가치		제 2 가치		제 3 가치	
	주거가치 측면	N %	주거가치 측면	N %	주거가치 측면	N %
1	건강·안전성	204 37.4	주거의 편리성	136 25.0	주거의 편리성	126 23.1
2	주거의 편리성	100 18.3	건강·안전성	111 20.4	자녀교육 환경	114 20.9
3	주택의 경제성	76 13.9	가족단란·화합	111 20.4	주택의 경제성	88 16.1
4	가족단란·화합	71 13.0	자녀교육 환경	88 16.1	가족단란·화합	60 11.0
5	자녀교육 환경	45 8.3	주택의 경제성	44 8.1	건강·안전성	50 9.2
6	주택의 인지성	33 6.1	주택의 인지성	30 5.5	주택의 심미성	50 9.2
7	주택의 권위성	9 1.7	주택의 심미성	17 3.1	주택의 인지성	44 8.1
8	주택의 심미성	7 1.3	주택의 권위성	8 1.5	주택의 권위성	13 2.4
	무응답	4	무응답	4	무응답	4
	계	549 100.	계	549 100.	계	549 100.

5. 주거에 관한 가치 순위 (주요구)

주거에 관한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가치의 8가지 측면에 대해 중요시한 순위를 보면 (표 6)과 같다.

제 1가치에서 가족의 건강·안전성, 주거의 편리성, 주택의 경제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택의 권위성이나 심미성은 가장 낮은 순위였다. 제 2가치에서는 주거의 편리성, 가족의 건강·안전성, 제 3가치에서는 편리성, 자녀교육환경의 우수성

4. 결 론

청소년의 주거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시 중·고등학교 학생 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 주택에서의 거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학군과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직장때문이라는 이유를 1 순위로 들고 있으며 부모님의 선

택, 현 주택에서의 생활 편리, 교통 편리를 2 순위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선택에 있어서 청소년은 자신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과 자신들 이외의 요인들로 이해 주거가 선택되고 있다는 생각이 혼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주택 거주이유에서, 제 1 이유, 제 2이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른 현 주택 거주이유가 다를 수 있다.

2. 현재의 주택유형과 이전, 이후의 주택유형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현재의 주택유형으로는 독립주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파트의 순이었으며 이사오기전 주택유형 역시 독립주택이 많았다. 그리고, 이전의 주택유형과 현재의 주택유형은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며 앞으로 원하는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독립주택이 많았다.

3. 앞으로 주거선택시 고려정도는, 시설 환경, 교통 환경, 주변 환경, 교육 환경, 사회 환경, 경제 환경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앞으로의 주거선택에 있어 무엇보다 주택의 편리한 시설과 교통의 편리를 들고 있어 주택의 외향적인 모습들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의 주택 이상상을 살펴본 결과, 가족 단관주의가 강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장만 대신에 다른 것에 투자를 한다든가, 집은 잠자는 곳이라는 생각은 아주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주거관의 차이를 보면, 내집 마련에 대한 소유욕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가족단란, 유행추구, 지역성동에 치중함을 알 수 있다.

5. 주거에 관한 가치 순위는 제 1가치는 가족의 건강·안전성, 주거의 편리성이었으며 제 2가치는 주거의 편리성, 가족의 건강·안전성, 제 3가치는 편리성, 자녀교육환경의 우수성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권위성 이나 심미성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여, 주거의 물리적 편리성과 안전성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의 건강·안전성, 학군등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주택의 경제성, 가족의 단란·화합을 중요가치로 두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주거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주자의 주거관을 반영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성이 있다. 또한, 주거관이 형성되기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고찰만 하였을 뿐 각 단계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차후에 성별, 연령별에 따른 주거관 및 주거관 형성 메카니즘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다 체계적인 주거관을 바탕으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주영애, 도시주부의 주거에 관한 가치관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신경주, 주거학, 수확사, 1990.
3. 扇田信, 住居觀の研究 - 住意識について -,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第68號, 1961.
4. 윤복자, 지 순, 기초 주거학, 신광출판사, 1992.
5. 김순경, 청소년 주거의식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6. 오찬옥,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물리적 환경과 주거적용 형태와의 관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7. 서계영, 집합주거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영남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8. 박인학, 의식구조에 의한 주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9. 건설부, 주거실태조사, 1981.
10. 윤복자, 백금화, 아파트 입주가구의 이주동기와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제 29권 3호, 1991.
11. 홍성희, 주거가치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12. 김미희, 주거선택 행동에서 나타날 주거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